

# 담양 대나무축제 평소 2배 '지역소비 효과'

국민카드 결제 103% 증가  
외지인 매출 93% 달해  
전국 축제 중 2번째로 높아



담양 대나무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대나무뗏목 타기 체험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2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담양 대나무축제의 지역소비 효과가 평소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빅데이터 전문기관 빅디퍼가 최근 담양 대나무축제의 지역소비 효과를 조사한 결과 효율이 103%로 축제 기간에 지역 내 소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빅디퍼는 지난해 문화관광축제가 열린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기간 1일 평균 KB국민카드 결제액을 전년도 1일 평균 카드 결제액과 비교해 그 증가분을 백

분율로 나타낸 수치를 분석, 소비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기간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외지인의 카드결제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담양은 분석 대상 축제 중 2번째로 소비

담양 대나무축제는 93%로 외지인 유인 소비 효과가 컸다. 축제 기간 카드결제 이용자 성별 비율은 여성이 57%로 남성(43%)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카드지출 내용을 보면 숙박 및 음식비 58%, 도소매 소비 29%, 오락 및 기타 소비 14% 등으로 숙박 등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밖에도 담양대나무축제 기간 지역 내 1인당 평균 카드 결제액은 4만4000원 수준을 보였다. 담양군 관계자는 "카드결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축제의 경제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숙박 및 음식비에 편중된 소비를 분산시키기 위해 불거리와 즐길 거리, 살거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rg@kwangju.co.kr



화순군 관계자들이 만연산 치유의 숲에 해충 유인트랩을 설치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 화순군 산책로에 해충 유인트랩 설치

화순군이 생활권 주변 산책로에 친환경 해충 유인 트랩을 설치하고 병해충방제에 나섰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해충이 늘어나자 퇴치를 위해 만연산 치유의 숲과 동구리 호수공원 등 지역민 이용이 많은 곳에 해충 유인트랩 2000개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해충 유인트랩은 색으로 해충을 유인하는 끈끈이형 트랩으로 살충제 살포로 인한 산림환경 피해를 줄이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방식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수만리 철쭉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방파벌레 등 병해충방제도 이번 달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화순군은 산림병해충을 예방하고 지난 5월과 6월(장마전)에는 배롱나무와 무궁화 등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하고 7월 초에는 동구리 호수공원 일원에 갈색날개매미충 등에 대한 선제적 방제를 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 전남지역 '명품 지하수' 10곳 지정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수질 분석  
담양 무등산생태요양병원  
개인 소유 유일하게 선정

담양군 남면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의 지하수가 명품으로 지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환경보건연구원이 수질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에 89.5점을 얻어 명품지하수 인증을 받았다. 18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 좋고 유해 중금속과 방사성 물질에 안전한 물을 '명품 지하수'로 발굴, 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남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알리고, 명품 물을 찾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연구원은 칼슘·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 게르마늄 등 기능성 성분, 방사선 물질 등 63개 항목을 수질 분석해 이를 점수로 환산,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받은 지하수를 발굴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수질 검사한 지하수 가운데 85점 이상 획득한 10곳을 최근 명품 지하수로 지정했다. 나주 다시, 담양 가마골, 고충 원세동, 장흥 유지, 함평 월현 등 마을 상수도 5곳과 순천 상원, 나주 만세, 곡성 구룡, 보성 갈마 등 소규모 급수시설 4곳이다. 특히 유일하게 개인 소유의 담양군 남면 무등산생태요양병원 내 지하수가 명

품으로 선정돼 화제다. 이 지하수는 천연 알카리성(pH 8.3)이고, 천연 중금속 예방이 가능한 불소(1.27mg/L)도 함유돼 있다. 항암·혈압 정상화·신경계 치료 효과가 있는 리튬(23.22μg/L), 당뇨병을 치유하는 천연 인슐린인 바나듐(0.41μg/L), 심장병·노화방지·면역기능을 강화하는 셀레늄(0.79μg/L) 등 미네랄 물질이 풍부하다. 또 건강에 좋고 맛있는 물 지표도 최상등급을 받았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들 10곳의 지하수는 미량의 천연 미네랄 물질이 풍부하고 전혀 오염되지 않아 건강에 좋고 맛이 있다"며 명품 지하수를 적극 추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장성 북하면 농촌지도자회  
농업 기술 전수·고충 상담  
귀농인 정착 돕기 소통행사

장성군 농촌지도자회들이 지역 귀농인들의 초기 정착 어려움을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북하면 농촌지도자회가 지난 16일 귀농인협의회 소속 회원들을 초청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소통행사를 가졌다. 지난 달 맺은 농촌지도자장성군연합회와 장성군귀농인협의회 멘토링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하면 농촌지도자회는 북하면에서 농업을 시작한 귀농인들의 애로사항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들은 귀농인들에게 유용한 농업 기술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법, 농촌생활에 대한 고충상담 등도 돕는다. 유용준 북하면농촌지도자회 회장은 "지역 농업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민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소통 행사에 대한 반응이 좋아 올해까지 다른 읍면에서도 농촌지도자회와 귀농인협의회가 화합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장성군을 찾는 귀농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 6월 말 현재 150여명이 이주를 했으며 군에서는 귀농인들의 준비단계부터 정착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귀농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서 국궁장서 어린이들이 활쏘기 체험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홍길동 테마파크서 활쏘며 더위 날리세요

장성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서 활쏘며 더위 날리세요."  
장성군은 홍길동 테마파크 국궁장이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국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궁 이론부터 자세, 활쏘기 방법을 배운 후 화살 20발 쏘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우아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 과녁에 '뚱'하고 명중할 때면 더위를 씻어내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다. 체험비용은 한 사람당 2000원이다.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국궁지도사가 직접 교육한다. 홍길동 테마파크 국궁장은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1050㎡ 규모로 조성됐

다. 과녁 5개, 고전실 4개, 심판대 4개, 운시기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국궁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6월 홍길동 축제기간에 맞춰 전국 규모의 친선 국궁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국궁 체험에 호기심을 보이며 전통 활쏘기를 즐기고 있다"며 "국궁 체험으로 홍길동 테마파크를 관람하는 재미가 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생가와 전시관, 4D영상관, 산체체험장, 풋살경기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정백한옥, 식당, 매점 등을 갖춘 장성의 대표적 관광지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주로 찾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군 군정 법률자문  
고문 변호사 4명 위촉

화순군은 군정 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을 고문 변호사 4명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촉된 변호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최병근, 임태호, 정혁, 지미경 변호사다. 이들은 군 시책이나 사업추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한다. 또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대리인 역할도 한다. 고문 변호사는 화순군 고문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 수당을 받는다. 임기는 2년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담양군 임신·출산·육아 정책 대폭 강화

담양군이 영유아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영양제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육아정책을 강화한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관내 임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부를 위한 탄산에방크림과 유축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탄산에방크림 지원은 매 임신 시 1회,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에게 지급된다. 유축기 지원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대역 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유축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대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영유아 영양제 지원은 만1-5세 지역 보건소 등록 영유아에게 비타민 3개월분이 지급된다. 담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전과 임신 중, 출산 후 및 영유아 건강관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시책을 개발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공동체를 갖춘 행복 담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rg@kwangju.co.kr

# 몽칩시다!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서 아침에 눈을뜨면 중개업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 중개사님! 실장님!들이 많습니다.

(주)가은 부동산 중개법인에서는 개발지, 시행처, npl, 급매물 등 계약성사가 빠른 현장정보를 제공하며, 20여명의 직원들끼리 손님과 매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함께 파이팅 하실분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연락처 010-2800-3589

